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58 2014 / 8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행복

글 시인 서명옥

흐르는 물 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라
하더이다

찬바람 불어 닥쳐도
미소 띤 얼굴로
살포시 안기면
고이 품어 주는 것이라
하더이다

생명환희
잔잔 호수되어
환호의 훈풍되어
가만히
덮어주는 것이라
하더이다

경남교육 이야기
Vol 258 2014 / 8

Contents

04 권두언
네오노매드(neonomad)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장학칼럼
'모두가 행복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착근을 위하여 / 하상수

09 특별기획 / 경남교육 역점과제 1-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 곽형준
혁신학교 운영사례(초등) / 양재욱
혁신학교 운영사례(중등) / 황금주

18 교육정보
교육기부 / 장태분
학교폭력 사례 / 성수민

20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읽기 활동으로 확산적 사고력 기르기 / 김미정
소통과 협업을 통한 Smart 수학 수업 / 선승희

24 배움이 즐거운 학교
상리 무학년 체육 활동으로 자라는 몸과 맘(상리초) / 허연수
향기로운 꽃과 명화, 그리고 시가 있는 감성학교(김해여중) / 이혜란
배움의 사기(四氣)가 쑥쑥 올라요(경운초) / 허지윤

31 이달의 교사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실습 협력학교 교사와의 만남 / 오정훈

33 삶의 향기
선생님! 염려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책 읽어주는 저녁 / 정정임
'지금' 이 순간, 그대 춤춰라 / 한채윤

36 동아리 탐방
책속에서 꿈꾸는 아이들 / 남민주

38 행복한 책 읽기

39 지상갤러리
분청 조화 문호 / 홍명선

표지사진 "내고장 탐사"
김상백(합천 쌍책초등학교 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9월호 모집 기간 : 2014년 8월 18일까지
- 모집내용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삶의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4년 8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이정식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심광보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이병만
편집위원 | 김정애, 김강희, 이유경, 정호찬, 박선정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권두언 / 교육감

네오노매드(neonomad)

장마가 그치니 무더위가 더합니다. 이래저래 견디기 힘든 여름입니다. 방학한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누리는 휴식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 피서(避暑)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위에 맞서 이겨내고(克暑), 또 다른 사람들은 더위를 오히려 즐기기도 합니다. 향서(享暑)라 할 수 있겠지요. 연수로 내적 충일감에 젖는 것, 탐방과 모험으로 호기심을 채우는 것, 여행으로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바로 향서가 아닐까 합니다.

해외 문화 체험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문명인을 일컬어 신 유목민(neonomad)으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애초부터 노매드였지만 정착의 농경 시대를 거치며 주춤해졌다가 나라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유목민적 삶의 형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과 경제에 있어 이 새로운 질서는 이미 세계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통신 수단이 만들어 내는 소통은 경계와 장벽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왕래는 생활의 풍속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네오노매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무역에 바탕을 둔 세계 경제에 대한 민감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화와 문화의 마주침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자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절이란 공경과 겸손의 외적 표현에 그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도', 다시 말해 관계를 맺는 내적 자세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두루 아우르는 말입니다. 국제

예절이라는 말은,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 대화의 방법과 같은 좁은 범주에서 벗어나 다름을 빚어낸 지리적, 역사적 배경, 의식주를 비롯한 색다른 풍속, 그들만의 언어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들, 통틀어 말하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아량을 뜻합니다.

경주의 고분들에서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방의 유리잔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혜초 스님은 인도차이나의 바다를 돌아 인도로 갔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미르 고원을 거쳐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삼백 년 전의 일입니다. 까마득한 그 옛날에도 바닷길은 열려 있었고, 비단길에는 대상들이 줄을 이었으며, 초원길에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타의 등 위에 실린 고운 비단 속에는 종교와 과학도 싸여 있었습니다. 코발트빛 유리잔에는 지중해의 물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의 행간에는 힌두스탄의 순진한 눈빛도 담겨 있었습니다. 모랫바람이 불어오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는 불교도와 회교도, 기독교도가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하늘길, 뱃길을 바쁘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 길을 선생님들이 먼저 다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떼가 언덕을 넘는 초원, 가난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히말라야의 고원, 굶주림에 지친 슬픈 아프리카, 설레는 한가로움이 있는 루브르, 열정이 거리를 흔드는 남미의 도회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북적대는 낯선 나라의 시장까지 선생님들이 먼저 둘러보고, 삶의 진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도대체 사는 까닭이 무엇일까 번민하다 마침내 한 줌 사랑을 손에 쥐고 교실로 돌아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과 사랑이 깃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국제적, 문화적 감각을 높여 드리겠다는 약속을 새 정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해외 연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경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체험의 기회를 보다 많이 드리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안목과 문화적 소양이 국민의 교양 수준과 국격을 높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떠나는 나그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번 여름, 먼 길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떠나지는 못할지라도 네오노매드가 되어 바람을 맞고 선 자신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지요?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한 줄기 향서의 바람을 보냅니다.

햇살 따가운 팔월 초하룻날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1

2

생생현장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3

4

1 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주요업무 보고
2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 방문단 환영식
3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4 나도 Book Star 독서감상발표대회(거제교육지원청)

❺ 찾아가는 교육기부 연수(거창교육지원청)
❻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 · 진로체험 지원단(밀양교육지원청)
❼ 자유학기제 기반 조성 학교장 워크숍(산청교육지원청)
❽ 죽림지역 초등학교 신설 3차 TF협의회(통영교육지원청)
❾ 제2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해설 음악회(김해교육지원청)
❿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박람회(고성교육지원청)
⓫ 책벌레가족대회 시상식(경상남도유아교육원)

❺

❻

❼

❽

❾

❿

⓫

‘모두가 행복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착근을 위하여

글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같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요구에 다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새롭게 등장한 정책이 있는 반면에, 시행하기도 전에 사라진 정책도 많았다. 시대 요구나 교육의 본질적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정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교육은 그간 암기식,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나 학교생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 기다려지는 즐거운 수업이 되었다면 학교폭력 등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발생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런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겪은 노고와 심려는 말할 필요도 없겠다.

2013년 6월에 발대식을 한 이후, 우리 도에서는 현재 50개 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 ·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전 중학교의 50%인 140교에 확대 적용하고, 2016년에는 전 중학교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 ·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범적용 결과,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우리는 학생과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꿈’을 찾고 ‘끼’를 살리고, 학생들이 미래 인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게 모든 교육활동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첫째, 자기주도 창의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핵심성취기준 기반 학생 참여 · 활동형 수업’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둘째, 학생 수요 기반 참여 · 활동형 프로그램을 확대 · 강화해 가고 있다.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진로탐색활동, 수요자 중심의 학생 선택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활동, 예술 ·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학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모두 교육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자유학기제는 만들어서 던져 준 제도가 아니라 전 교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야 할 제도이기에 더욱 매력 있다.

이제 모든 교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특별기획

경남교육 역점과제 1
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8월호 부터 새로운 경남교육의 역점과제를 순차적으로 조명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교육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학교,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미래형 학교인 경남형 혁신학교의 방향을 알아봅니다.

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글 창원 토월초등학교 교사 **곽형준**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혁신학교TF 팀장)

1. 시작하며

2000년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살리기에서 출발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만나면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의 학교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경기를 비롯한 서울,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경기도를 모델로 한 혁신학교가 확산되었다.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625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제 16대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핵심공약의 첫 번째로 경남형 혁신학교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부터 배움이 즐거운 혁신학교를 경남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 경남형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가장 먼저 실천한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 또한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공통점으로는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지역과의 연대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혁신학교에 대한 상을 바탕으로 경남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경남형 혁신학교를 정리해 보았다. 경남형 혁신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이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경남형 혁신학교는 첫째, 교육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과 협력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학교를 지향하고, 둘째,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미래형 학교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경남형 혁신학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서의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혁신'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혁신학교를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교육과정 또는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혁신을 실천해보자는 것이다.

3. 혁신학교의 목표 및 4대 추진 과제

경남형 혁신학교의 정의를 바탕으로 4가지의 목표를 수립하였고, 각 목표에 따라 4대 추진 과제를 구성하였다.

가. 혁신학교의 목표

첫째,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셋째, 교육공동체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혁신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개방적 학교 운영

나. 4대 추진 과제

과제	추진내용
과제 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비전 만들기 –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 확립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 교감 중심의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을 통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 불필요한 행사 폐지 및 축소
과제 2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 중심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다양화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형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학년 통합, 교과 통합 등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 생태, 문화 · 예술, 인권, 평화, 민주시민 교육 ▶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 교사 중심에서 학생 배움 중심 수업으로 전환 – 참된 배움이 있는 수업 만들기(문제해결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체제 –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내실화 – 초등학교 일제고사 형태의 중간 · 기말고사 단계적 폐지
과제 3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 학년 및 학교 단위의 협력적인 연구 활동 활성화 – 교사 연구동아리 운영 ▶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 수업성찰을 위한 수업공개 및 협의회 개최 –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교사연수
과제 4 소통과 배려의 공감학교	▶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만들기 –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생활 규범 만들기 –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다양한 동아리활동 지원 – 학교운영에 학생 자치회의 의견 반영 ▶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강화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형성

4. 혁신학교 추진 계획

앞으로 경남형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개발된 학교 모델을 바탕으로 경남의 모든 학교들이 배움이 즐거운 학교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25명 내외의 작은 학급을 지향하면서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혁신학교는 3가지 유형으로 선정해 나갈 것이다. 첫째, 인증형이다. 이미 혁신학교 철학에 적합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 결과를 평가 후 혁신학교로 인증하는 유형이다. 둘째, 공모형이다. 혁신학교 추진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지정형이다. 신설학교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공모형과 지정형은 1년 동안 예비 혁신학교 기간을 거쳐 평가에서 통과될 경우 혁신학교로 선정된다. 예비 혁신학교 기간에는 4대 추진과제 중 과제 1은 필수로 실천하고, 나머지 3가지 과제 중 1가지 과제를 선택하여 실천하게 된다.

혁신학교 선정대상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이며, 도시, 농어촌, 원도심 등에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4년이다. 혁신학교의 우수 사례 발굴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혁신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1, 3년차에는 학교 자체로 평가하고, 2년차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 결과가 지극히 미흡할 경우 지정 철회를 한다.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연속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적으로는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학교장 임용 제도의 다양화, 교무행정사 추가 배치 등이 이루어진다. 재정적으로는 연간 5천만원 내외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컨설팅 및 연구회, 학부모 네트워크 등의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5. 학교혁신 추진 계획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혁신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학교 · 학년 · 동아리 등 참여 단위를 다양화하여 학교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학교혁신 추진 결과가 우수할 경우 예비 혁신학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학교혁신 공모는 2가지의 추진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 과제로 배움 중심 수업이다. 공모 유형에는

학교형, 학년(군)형, 동아리형이 있다. 학교형은 1개 과제를 학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학년(군)형은 희망하는 학년(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동아리형은 교내 교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교혁신을 실천해보는 유형이다. 1천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유형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6. 마치며

경남형 혁신학교는 빠른 성과보다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게 된다. 먼저 '도입기'이다. 2014학년도 2학기부터 혁신학교 기본 계획을 확정 짓고, 권역별 혁신학교 설명회를 가진 후 인증형 및 공모형 혁신학교를 10개 내외 지정하여 2015학년도부터 운영한다. 두 번째로 '성장기'이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내실을 다져가며 혁신학교와 학교혁신 공모를 전체적으로 추진한다. 혁신학교는 30개 내외, 학교혁신 공모는 200개 내외 운영할 것이다. 세 번째로 '확산기'이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혁신학교 50개 내외, 학교혁신 공모 400개 내외를 운영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벨트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2~3개 시 · 군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화'이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혁신학교는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즐거운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교육운동으로 출발하였다. 교사의 자발성 없이는 혁신학교의 성공을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교사의 열정과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혁신학교 운영사례(초등)

- 모두가 행복한 혁신학교 만들기 -

글 진해 제황초등학교 교사 **양재욱**

아이들은 놀아야 공부할 수 있다.

노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어른들의 조급함이 아이들의 배움을 가로막는다. 처음으로 놀이 활동 30분을 만들었을 때 운동장은 욕설과 폭력이 일상이었다. 어울려 노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의 갈등은 상당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파도치던 운동장은 잔잔한 호수가 되었다. 학년 구분 없이 어울리는 모습, 다른 학년을 위해 공차기를 양보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배려와 어울림의 공간이 되었다. 그렇게 땀 흘린 30분이 있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은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다.

자연은 아이들을 곱게 물들이는 최고의 물감이다.

진달래를 따서 먹고, 망개 열매를 따서 먹고, 딸기를 먹고, 아카시아 꽃을 먹고, 찔레 순을 따서 먹고 아이들은 입으로 자연과 친해진다. 숲에서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시인이 된다. 내 나무를 정하고 귀를 대고 속삭이며 자연과 자신의 가슴에 통로 하나를 만든다. 목련의 커다란 잎은 아이들의 왕관이 되고 드레스가 된다. 나무 오르기는 가슴을 방망이질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수요일 8시 30분이면 아이들은 신비한 세상과 만날 흥분에 들떠있다.

교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협력해야 자신을 넘어서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30분 동안 교사들은 회의를 한다. 매일 매일 회의를 해도 어찌나 서로 주고받을 게 많은지 점심시간도 회의하고 수업 후에도 또 회의한다. 그 회의에서 교사들은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학교 모든 아이들을 위한 총제적인 교육과정을 창조한다. 연구실에 전교생의 사진과 이름이 있고 그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교육과정을 넘어 아이들의 삶 속에 교사가 들어가고자 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하면 학교의 역량도 뛰어넘을 수 있다.

수학시간에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위해 학부가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돕는다. 학교 일을 돕는 보조 인력도 학부모가 최우선이다. 도서관 활동에는 아버지도 참여하신다. 지난

여름계절학교에는 60여분의 학부모님이 참여하셨고, 전체 과정을 기획하는 데 학부모가 참여하여 운영의 주도권도 가져갔다. 학부모는 학교에 자신들의 역량을 모두 쏟아낼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광대역 통로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진해 문화해설사되기' 프로젝트, 중앙시장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등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는 교육은 학교의 담장을 지역전체로 넓혔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상상을 뛰어넘는다.

도덕과 학년통합 프로젝트, 수학여행 프로젝트, 야영 프로젝트, 도지사되기 프로젝트, 시의원되기 프로젝트, 진해 문화해설사되기 프로젝트, 벽화프로젝트, 진로프로젝트, 졸업프로젝트, 영화만들기 프로젝트, 학급음악회 프로젝트, 전기수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 체험과 표현을 포함한 활동은 배움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교사도 깜짝 깜짝 놀라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에서 출발한다.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권한을 교사들에게 이양하셔야 가능한 일이며 교사들의 비틀거림을 인내심으로 기다려 주셔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또한 행정실의 업무협조가 없다면 교사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우리의 제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혁신학교 운영사례(중등)

-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 함께 만들어가다 -

글 김해 봉명중학교 교사 **황금주**

혁신학교에 대한 경남교육가족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7월 16일 창원과학고 대강당에서 경남교육청 역점과제인 혁신학교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천 명이 신청했지만 장소가 좁아 500명이 참석했고 교장, 교감선생님도 많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혁신학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감동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남교육청 역점과제로 '경남형 혁신학교 운영'이 결정된 후 만나는 사람들마다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혁신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의 자발성이 필요하고 교사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자발성이 있어야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학교는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철학'을 공부하며 서로 수업을 열고 성찰하는 '수업친구' 교사동아리 모임을 해오고 있고 올해는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선정되어 수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은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고 중학교 교실에는 수업에 흥미를 잃고 딴 짓을 하거나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배우는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교사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져야 수업의 변화,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학부모 수업공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료교사의 수업에 5분 이상 앉아 있으면 눈치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에서는 동료교사들과 함께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1학년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수업을 공개하기로 하고 매월 1회 전체 수업공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1학년 5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수업을 공개하였다. 가사실에 책상을 옮겨와 40여명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수업을 참관하였다. 전체 선생님들이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은 귀가시키고 수업공개할

반만 남겨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교사의 수업기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참관모둠을 정해 모둠활동을 관찰하고 학생의 배움을 관찰합니다. 이어 전체 교사가 참가하는 수업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수업을 통해 내가 배운 점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솔직히 애들 모둠활동 관찰보다는 저의 수업을 떠올렸다.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 내 수업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4명 중 3명은 활발히 의견 교환을 하는데, 한 학생은 소극적이었지만, 다른 친구 3명이 한 명의 친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다."

수업협의회 때 동료교사들과 수업에 대해 나누는 시간은 어떤 수업전문가들이 하는 연수보다 의미있고 값집니다. 수업협의회를 할 때는 자신이 관찰한 사실, 자신이 배운 점을 말해야 하며 동료성을 해치는 수업에 대한 조언이나 지적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수업을 공개하겠다는 교사도 없고 동료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전체 수업공개가 이루어지며 아이들의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 협동적 배움의 수업방식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표현합니다.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집에 와서 수업이 재밌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교실의 모습은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며 모르는 것을 두려움 없이 물어보는 교실의 모습입니다.

'배움의 공동체'는 수업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력하며 배우고 교사들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일, 이것이 바로 혁신학교의 출발점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 경남형 혁신학교의 모습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수집 등을 통해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정신을 선도하며 도민에게 수준 높은 미술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미술전, 교육체험전, 지역미술전, 소장품전, 순회전 등 5개 분야의 수준 높은 기획전시와 어린이 미술체험교실 및 일반인 체험교실, 일반인 교양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퐁피두센터 교육체험 특별전

- 운영대상 : 3세 이상의 어린이, 초등학생
- 운영기간 : 2014.5.15~8.27
- 운영규모 : 1회 30명
- 운영시간 : 10:30, 13:30, 15:30 (90분 수업)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를 통한 사전예약제

체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사물의 모험 『아르망의 아뜰리에』	작가 아르망의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된 전시로써 여러 체험 도구들을 통해 작가의 창작 원리를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형 전시	
	다양한 체험 활동(사물을 쌓거나 자르거나 도장 찍기 등)을 통해 아르망의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으며, 작가와 같이 사물 속을 탐험할 수 있도록 구성	
	3명의 교육 강사와 함께 진행되는 『사물의 모험』은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과 상상력을 키우는 체험 활동	

※접수 관련 연락처 : 설원지 (T. 055-254-4633, F. 055-254-4639, sulsiksik@korea.kr)

학교폭력 사례

글 경상남도교육청 상임변호사(학생안전과) **성수민**

Ⅰ. 관련 사례

중학생 A양은 문자메세지로 '찐따' 등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두 명에게 보냈다. B양 등은 이런 사실을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

A양 측은 이에 반발해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된 명예훼손 · 모욕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처럼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B양 등만 볼 수 있는 문자메세지로 보냈기 때문에 명예훼손 ·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 · 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폭력은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문자메세지로 폭언을 한 행위는 학교폭력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Ⅱ.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글 함안 호암초등학교 수석교사 김미정

과정 중심 읽기 활동으로 확산적 사고력 기르기

1. 배움, 나눔으로 행복한 교실

공부시간 교실에 날아드는 나비 한 마리만 있으면 교실의 아이들은 시끄러워지며 즐겁다. 눈으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으랴, '우리 교실에서 무얼 할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아이들은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나비에 집중하여 행복하고 즐거워진다. 교사인 나는 교실에 날아들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나비를 찾고 싶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찾은 나비 중 하나가 '과정 중심 읽기 활동'이다.

꿈을 키워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책도 많이 읽고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아하지만,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은 후의 반응은 '참 재미있었어요.', '다른 이야기도 읽고 싶어요.' 라는 아주 짧은 한 두 마디의 말뿐이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과정 중심의 다양한 읽기 활동을 통해 글 속에 풍덩 빠져 충분히 이해하고 느껴보고, 자기 생각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자 '과정 중심 읽기 활동으로 확산적 사고력 기르기'를 실천해 보고자 하였다.

2. 과정 중심 읽기 지도

과정 중심의 언어 지도는 언어의 '과정'을 강조하여 가르침으로써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언어 교육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자 접근 방법이다.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는 일련의 읽기 과정 자체를 교육의 직접 대상으로 삼았다.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나누어 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 행위나 전략 등을 상정한 뒤에 이것을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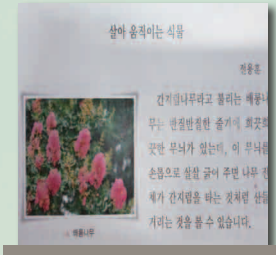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제목, 사진, 그림 보고 예측하기 • 읽기 전 KWL 작성하기 • 글을 읽는 목적과 방법 정하기	• 내용 이해하며 읽기 • 질문의 답 찾으며 읽기 • 이어질 내용 추론하며 읽기 • 자신의 경험과 지식 관련지으며 읽기	• 주제에 대한 토의 • 의미 지도 그리기 • 다른 장르로 바꾸어 통합적 활동 • 예술적 활동과 연결 • 결말 바꾸기

과정 중심 읽기 지도를 위하여 차시별 읽기 전, 중, 후의 활동을 계획하고 수업을 전개하였다. 교수 · 학습 모형은 학습 주제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읽기 과정별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계획하여 실행하고자 하였다.

읽기 전 활동은 '읽을 준비 활동'이다. 글을 읽기 전 읽기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아동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을 통하여 스스로 읽을 마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읽기 자료와 관련된 주제를 주어 브레인스토밍으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제목과 그림보고 예측하기,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KWL 작성하기, 읽을 목적 정하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충분히 읽을 준비를 하게 하였다.

읽기 중 활동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 주 활동이다. 읽기에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교사와 교대로 읽기, 친구와 교대로 읽기, 목소리 바꾸어 읽기, 들려주기, 따라 읽기 등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줄그으면서 읽기, 질문 만들면서 읽기, 질문에 답 찾으면서 읽기, 메모하며 읽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 관련지으며 읽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읽기 후 활동은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감상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활동'이다.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기, 이야기의 결말 바꾸기, 토의하기, 예술적 표현 활동과 관련짓기 등 개인적 감상 정리 활동 등을 모둠 토의 · 토론 활동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활동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궁극적인 국어 교육의 목표인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제목 그림보고 예측하기

읽을 목적 정하기

읽은 후 토의하기

인형극으로 표현하기

3. 생각의 파도를 넘어 넘어서!

과정 중심 읽기 활동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재미있는 국어시간을 전개하여 하였다. 단순한 읽기활동에서 벗어나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다양한 활동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글을 읽으며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표현력을 향상시켰다. 아동들은 읽기 전 과정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읽기의 일련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활동으로 확산적 사고력과 언어표현력을 점차 향상시켜 나갔다.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색이 천천히 스며들 듯 확산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고 실행했던 결과, 읽기 시간을 즐기면서 친구들과 함께 읽는 즐거움을,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비 한 마리의 몸짓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음을 느끼며 또 다른 멋진 나비를 찾고자 한다.

글 김해 율하중학교 교사 선승희

소통과 협업을 통한 Smart 수학 수업

1. 학생과 소통하는 Smart 수학 수업의 이해

얼마전부터 교육현장에서 스마트교육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과거의 3R(읽기, 쓰기, 셈하기)보다는 4C+(창의성, 인성,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강조되고 있으며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과의 소통과 협력하는 수업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수학수업은 개념과 원리가 중시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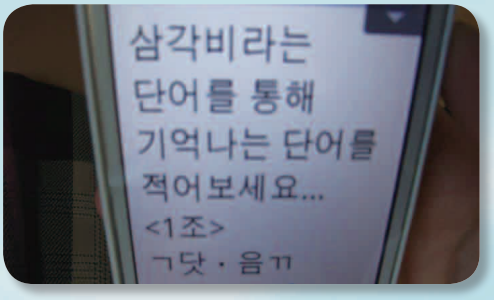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협력과 협업을 통하여 원리를 이해할까? 이러한 물음 안에서 교사 중심적 수업이 아닌 학생 스스로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설명, 풀이를 하도록 유도한다. 전체적인 수업은 교사 통괄하지만 주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및 부연설명에 대한 모든 활동을 학생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고 학생이 정리한 자료를 스스로 모둠별로 발표하는 수업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친숙한 스마트폰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학생과 소통하는 Smart 수학수업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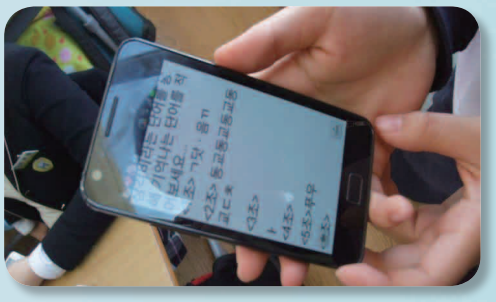
스마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수업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중 삼각비를 이용한 수업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수학수업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이 수업은 실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삼각비를 이용하여 거리를 구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은 모둠별로 모여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의논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협동심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구글문서를 통하여 모으고 협력과 협업을 통하여 실생활에서의 물건의 높이를 구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의사결정력을 길러 줄 수 있다.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둠별로 교실에서 각도기를 활용하여 물건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원리를 이해한다.
② 모둠원끼리 상의하여 실생활 문제를 1개 작성하고 그 문제를 QR코드로 만든다.
③ 다른 모둠이 만든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둠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④ 다른 모둠이 만든 문제의 풀이를 작성하여 문제를 만든 의도, 장점과 단점 등과 함께 구글문서에 올린다.
⑤ 자신의 모둠에서 만든 문제를 다른 모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한다.
⑥ 다른 모둠과의 활동과 소감 및 정리 활동을 구글문서를 통해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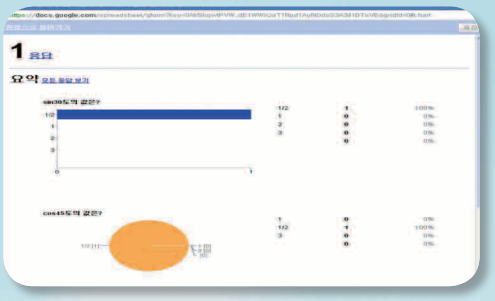
▲ 각 조별로 오늘 학습 주제인 '삼각비를 활용한 높이를 구하기'를 위하여 모둠별로 학습주제를 선택합니다. 단축URL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이 접속하여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실시간 협업을 통한 학습을 하고 학습주제 맞추어 조별로 댓글을 입력하는 활동모습입니다.



▲ 조별로 협업을 통해 학습내용을 적고 조별로 활동하는 모습을 구글문서에 올립니다.



▲ 학생의 구글 양식의 수정에서 통계를 보면서 조별로 문제의 풀이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3.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감하는 수학수업

스마트 수학수업을 운영해 본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단순히 수학수업은 그냥 주어진 문제를 수학공식에 맞춰 풀이와 답을 구하는 것이 전부인 학생들에게 나의 생각을 남에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토론과 탐구를 통하여 자신의 수학적 오류나 수학적 개념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은 현재 수학적 생각을 미러링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학습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과 함께 학습의 흥미와 자신감도 신장되었다.

'운동은 즐거운 배움이다'

상리 무학년 체육 활동으로 자라는 몸과 맘

글 고성 상리초등학교 교장 **허연수**

학교 수업시간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교육의 중심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배움의 특성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배움들은 쉬는 시간, 당번 활동 시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시간 등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아닌 학생들 간 또는 학생 스스로의 특별한 활동으로 발생한다. 학생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일어나는 배움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고, 특히 신체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얻게 된 배움은 오래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기다리는 체육시간과 쉬는 시간은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다.

1. 운동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

가. 스포츠 리그 활동

흔히 시골의 작은 학교는 10명도 되지 않는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피구나, 축구 등 다인수가 참여하는 정식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 수업을 지도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다인수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이 게임으로 지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스포츠에 필요한 특정한 기능과 전략을 배울 수 있지만 많은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 서로 상호 작용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포츠정신에 대한 배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학생 두 팀과 여학생 두 팀을 나누고, 각 팀의 1~3학년 부와 4~6학년 부를 구분하여 진행되는 스포츠 리그 활동은 남녀의 신체능력의 차이를 고려하고, 저학년 학생들도 스포츠 기능을 뽐낼 수 있으며, 고학년 학생들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스포츠 경기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 팀에는 지도교사와 주장(학생)이 있어서, 매 회 도전할 스포츠 종목을 정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중요한 전술과 기능, 팀워크를 다지며 연습을 한다.

〈 스포츠리그 진행 경기 〉

경기명	실시 월	참가인원(한 팀당)	특별규정
풋살	4월	3 ~ 5명	
농구	4월	3 ~ 5명	
플로어볼	4월	6 ~ 7명	
츄크볼	5월	3 ~ 5명	- 저학년 1명 이상 참여 권장
발야구	5월	8 ~ 10명	
티볼	5월	8 ~ 10명	- 중복참여 가능
피구	6월	10명 이상	
링던지기	6월	3 ~ 5명	- 전후반 선수 전원 교체
탁구	6월	1 ~ 2명	
플라잉디스크	7월	다수	
육상(트랙)	7월	전원	

3교시에 걸쳐 진행되는 스포츠 리그 데이는 전학년 통합체육수업으로 해당 주의 체육시수를 한 날로 조정하여 실시된다. 스포츠 리그 데이날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준비운동을 한 뒤, 지도교사와 주장 회의 때 정해진 종목의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이동한다. 고학년 남학생 경기, 고학년 여학생 경기, 저학년 남학생 경기, 저학년 여학생 경기가 한 시간 동안 동시에 진행되며,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션 형식으로 다른 경기를 하러 이동한다. 새로 신설된 상리 어울관에서는 주로 농구와 풋살 같은 실내 경기가 진행되고, 운동장에서는 티볼, 축구 같은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스포츠 경기가 실시된다. 또한 모래사장과, 수원지, 놀이매트 등 교내 잘 정비된 놀이 공간도 활용하여 스포츠 리그 데이에는 학교 곳곳에서 응원소리와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린다. 스포츠 리그 데이 경기가 끝난 후 승패가 기록 되어 승점을 얻을 수 있고, 스포츠 경기 중 바른 스포츠 정신으로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고, 팀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여 MVP선수로 뽑는다.

스포츠 리그 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협동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배울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경기 중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정서 태도적인 배움을 얻고, 같은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전술을 써보고 익히는 지식적인 배움도 깨닫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포츠 리그 데이를 준비하여 운동하고 배우며, 배운 기능과 전략, 팀워크를 발휘하여 성공적인 운동의 경험을 얻게 되어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나. 상리 텐텐텐 건강관리 프로젝트

꾸준한 운동은 신체발달과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점심을 먹기 전 20분 동안 전교생이 매일 운동하는 시간을 체력놀이 시간으로 정하고, 요일별로 이어달리기, 줄넘기와 같은 다양한 체력활동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 여름 날씨가 더워지고, 비만 아동의 증가 문제로 운동 능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상리 텐텐텐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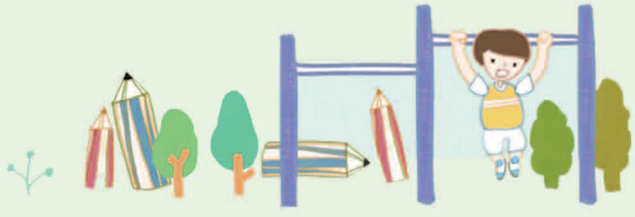
'상리 텐텐텐 건강관리 프로젝트'는 몸매 관리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텐텐텐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초등학생의 신체능력과 흥미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텐텐텐의 의미는 10대를 위한, 10분에 끝나는, 10가지 동작을 의미한다. '상리 텐텐텐 건강관리 프로젝트'는 독도 댄스를 시작으로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9가지 동작(제자리 뛰기, 인 아웃 발 터치, 스퀴트, 트위스트, 런지, 크런치, 배근, 푸시 업, 팔 벌려 뛰기)을 30초씩 코너별로 순환하여 이동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10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운동을 선택 · 집중하여 운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운동 계획을 세우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며 즐겁게 운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 실시한 운동을 '상리 텐텐텐 건강관리 프로젝트' 기록지에 기록한다.

'상리 텐텐텐 건강관리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신체 구성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음악과 함께 하는 즐거운 운동을 하도록 하여 운동이 힘들고 귀찮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2. 건강한 배움의 학교를 향하여

운동을 통한 배움은 활발한 에너지를 지닌 초등학생들에게 그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즐거운 가운데 배움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건강해진 몸과 마음은 새로운 배움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리그 활동, 스스로 운동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텐텐텐 건강관리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웃으며 신체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배려하고 협동하는 바른 마음을 깨닫는 건강한 배움의 학교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향기로운 꽃과 명화, 그리고 시가 있는 감성학교

글 김해여자중학교 교장 **이혜란**

1. 들어가며

언제부터였을까? 아침에 학교에 오면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침교실에 들어서면 모두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스마트 폰에 열중하고 있다. 책보다, 밥보다, 친구보다 좋다는 스마트 폰. 스마트 시대에 우리는 얼마만큼 스마트해 졌을까? 이성은 스마트해졌을지 몰라도 감성만큼은 예전만 못한 것이 분명하다. 밤이 되어도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이 없고 꽃이 펴도 향기를 맡는 아이들이 없다. 이러한 아이들의 감성을 학교에서라도 키워 줄 방법이 없을까? 김해여자중학교에서는 꽃과 명화 그리고 시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을 깨우고 있다.

2.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김해여자중학교 복도에는 꽃 향기가 난다. 지난 봄부터 꽃꽂이에 조예가 깊은 선생님들 몇 분이 정성들여 꽃꽂이한 작품들을 복도의 난간에 설치했다. 가야의 토기그릇 안에서 이쁘게 떠 있는 장미부터 목련과 자운영 등등 학교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꽃을 가져다 저마다의 자연미를 살려 학생들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무심코 지나가던 꽃들을 복도에서 감상하며 “선생님,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향기가 참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학생을 보면서 잠시 스마트 폰의 세상에서 벗어난 아이의 모습을 본다.

3. 고흐야! 아니야 고갱이야!

미술선생님은 고흐의 그림인지 고갱의 그림인지를 두고 다투는 두 학생을 지나가다 그 그림은 고흐도 고갱도 아닌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고흐는 1층 동편 현관쪽에, 고갱은 서편 현관 쪽에 가면 볼 수 있다라고도 말한다. 자극적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작으나마 창문에 코팅지 대신 붙어있는 명화는 그 자체만으로 신선한 자극이 된다. 조선의 신윤복부터 앤디워홀까지 시대와 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명화를 김해여중의 복도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가치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는 헤세의 말처럼 김해여중 학생들은 명화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4. 담쟁이, 한 뼘이라도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

담쟁이, 대추 한 알, 아버지의 마음, 서시, 사람의 체온 등등 이 시들은 모두 김해여중 곳곳에서 시 배너로 만날 수 있는 시들이다. 한 편 한 편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메마른 가슴에 고요한 파문으로 다가 올 만한 감성적인 시들. 학생들은 오며 가며 이 시들을 본다. 그리고 더러는 읽는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서시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대추 한 알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걸 배운다. 영상의 홍수 속에서 긴 글을 읽기 싫어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어쩌면 시는 짧지만 강하게 다가가 감성을 깨우는 좋은 촉매가 될지도 모른다.

5. 나오며

이밖에도 김해여중의 감성교육은 다채롭다.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아젤리아 합창부와 반별로 구성되는 합창제와 연극제, 가을의 산책 문학기행 등.

의리! 라는 단어의 인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의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다. 학생 개개인이 의리를 지킨다면, 왕따 문제나 학교폭력, 교권추락 같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이 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의리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키워진다. 의리 있는 학교, 감성이 충만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김해여중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배움의 사기(四氣)가 쑥쑥 올라요

글 경운초등학교 교사 **허지윤**

1. 교실 문을 들어서며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교실 문을 순간 더운 기운이 훅 밀려온다.

"선생님, 이발하셨어요?"

"염색하니 젊어 보여요."

친구 간에도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며 교실이 제법 부산스럽다. 기말 평가가 끝나고 방학이 다가오니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친다.

2. 배움과 행복의 기운을 서로 나누며

가. 내 몸 기(氣) 살리기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방과 후에 학원가를 맴돌다 밤 8시~10시 사이에 가정으로 돌아간다. 뛰어 놀 시간이 없어서인지, 학기 초에 체육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 체력을 측정해 보니 비만, 저체력 아동들이 상당수였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남녀별, 분단별, 번호별 등 다양한 모둠을 만들어 피구 리그전을 실시하니 그 결과 PAPS 측정 시 저체력 아동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나. 내 친구 기(氣) 살리기

"친구를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학급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어, 학기 초에 그 아이를 관심 학생으로 정하여 눈여겨보게 되었다. 배려 인사말을 정하고, 짝을 2주일마다 바꾸면서 학습을 도와주고 점심 식사시간에 팔짱을 끼게 하는 등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였다. 얼마 지나니 그 아이에게 행동의 변화가 오며 친구와의 친밀감을 나타내며 초등학교 생활 중 올해가 가장 행복한 해라고 말한다.

다. 우리 말 기(氣) 살리기

국어 · 사회 · 도덕 등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거의 낱말 뜻을 물어보는

게 우리네 수업 분위기이다. 국어 책을 읽게 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국어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은 사전을 옆에 놓고 공부를 한다. 이제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전을 자연스럽게 갖고 다니기 시작했다. 또한 아이들끼리 끝말잇기를 하면서 사전을 찾고 낱말 빨리 찾기 놀이를 하며 스스로 어휘력을 늘려가는 아이들이 대견하다. 한 학기가 끝나가는 요즘,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 이모티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담임도 모르는 단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있어 깜짝 놀란다.

라. 우리 역사 기(氣) 살리기

해마다 6학년 사회과 첫 수업시간에 나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첫째, 왜 동해(Sea of East)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시되어 있나?

둘째, 김구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무슨 뜻일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구분하지 못하고, 안중근 의사를 Doctor 안중근으로,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인물을 토요토미 히데요시로 알고 있으며, 6 · 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아이가 태반인 초등학교에서 한국사는 5학년 교육과정에 있다. 6학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역사를 지도한다면 5학년에서 학습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매주 수요일, 1시간만 한국사 공부하여 한국사능력시험에 도전해볼래?"

예상 외로 많은 15명의 아이들이 한국사 공부를 하겠다고 하여,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방과후에 90분씩 우리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 여름 방학 중에도 2주간 하루 2시간씩 교실에서 한국사 공부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지금은 8월에 있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초급)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한국사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신문 만들기와 역사 논설문 쓰기,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중급)에 도전할 계획이다.

"역사 책 속의 정도전과 TV속의 정도전은 왜 달라요?"

이제 공부한 지 2개월, 중세 시대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져 가끔은 담임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너무 흐뭇하다.

3. 교실 문을 나서며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 인사와 함께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시간에 아이들이 수줍게, 때론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선생님은 큰아빠 같아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말로 우릴 웃길 거예요?"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실습 협력학교 교사와의 만남

산호초등학교 오정훈선생님을 만나다.

활기찬 학급 운영과 알찬 실습 프로그램으로 예비교사의 꿈과 열정을 키워주는
진주교육대학교 교육실습 협력학교 교육실습부장 오정훈 선생님

Q.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현재 창원 산호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실습학교 근무 경력은 올해로 삼년 째입니다. 우리학교는 올해 처음 실습협력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저는 지난 학교에서의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각오로 산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는 실습생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본교는 작년 여름에 실습학교로 지정된 후 올해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와 선생님들이 알찬 교육 실습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육실습은 교육봉사실습,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실습은 그 목적에 맞게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소규모학교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규모학교 탐방'은 도시 근교의 소규모학교에 가서 학교의 실태와 환경을 살펴보고, 5~10명 내외의 아이들과도 수업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실습생들이 초임 발령을 소규모학교로 받게 되었을 때를 위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작은 학교에 많은 손님이 방문했는데도 실습생들의 알찬 경험을 위해 친절히 협조해주신 진전초등학교와 반동초등학교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Q. 실습협력학교 교사라면 자신의 수업 및 학급 운영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해 선생님께서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업 방법이나 학급 운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올 한 해 저는 탐구 · 토론 학습을 이용한 수업을 학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 학습이나 협동학습, 창의성 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협력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 조 · 종례 시간 등 학급 운영의 일상이 실습생들에게 모두 공개됩니다. 이를 위해서 3월부터 학급 운영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리 잡힌 학급의 모습을 실습생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학급 운영 방법도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

급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학생들이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께서 연구하고 적용하고 계시는 수업을 실습생에게도 보여주시는지요?

A. 물론입니다. 수업에는 왕도가 없듯이 선생님들마다 개성 있는 학급 운영이나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만의 수업 방법을 실습생들에게 공개하기도 하고 연구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실습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교사 시범수업, 실습생 수업 전후 협의를 통하여 실습생들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습생 지도 교사의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실습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습생 지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나 실습생 지도와 관련하여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과 동료 교사나 실습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공감의 자세가 갖추어져야만 학교 전체의 교육실습 활동이 마치 톱니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잘 맞물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예전과 달라진 요즘 예비교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특징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을 전하는 것이 좋겠네요. 요즘 학생들은 매우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임은 분명한데 다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은 잘 처리하나 내 주위를 둘러보는 것에 대해 미숙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교육대학교 측에서는 교육실습을 통해 실습생들이 학교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교사들 상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배 교사로서의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든 임용 시험을 합격하고 학교 현장에 왔을 때, 열린 자세로 동료 선생님들과 잘 교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아이들과 주변을 두루 잘 살필 줄 아는 아주 멋진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Q.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학부모님의 반응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학생들은 교생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시간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쭈뼛쭈뼛하던 학생들도 예쁘고 다정한 교생 선생님과 금방 친해져서 실습이 끝날 때 즈음에는 서로 정이 들어 실습생과 아이들 모두 아쉬움에 눈물짓곤 한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 하면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실습협력학교에 대한 호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혹시 도와줄 일은 없는지 연락하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Q. 교육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실습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많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마음 여린 교생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학교 계단에서 울고 있는 것을 제가 위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학부모 상담을 하고 가시던 학부모님들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작은 오해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먼저 먼 훗날 지금이 추억이 아름답기를 바라며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사로서의 역량도 조금씩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또 함께하는 모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푸근하게 이끌어주는 교사,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선생님!
염려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혁신학교 강연을 듣고 -

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주성**

지난 7월 초순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관련 강연이 있던 날, 보통의 강연회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 자료나 참석자 명단 없이 덩그러니 생수 2박스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실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의 강연이 시작되면서 잠시 느껴졌던 실망감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강연을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500mL 생수 한 병으로 겨우 허기를 달래면서도 두 시간 이상 열강하시는 강사님과 배움의 열정으로 경청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혁신학교의 비전과 실천 의지 속으로 저를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진보교육이니 보수교육이니 하는 영역 나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연의 질이나 만족도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이번 강연은 제가 접했던 수백만원짜리 유명 강사의 강연에 견주어도 절대 모자람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첫째, 선거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함께 세계사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둘째, 혁신학교의 비전이나 목적에 대한 이야기와

셋째,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감 없이 보여줌으로써 후발 주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혁신학교 안착의 관권은 혁신학교를 꾸려나갈 주체들의 리더십과 그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실천력의 확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을 듣는 내내 교육과 학교를 바라보는 시야를 보다 넓고 깊게 하는 '!'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혁신학교가 학교 현장에서 쉬이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혁신학교의 성패가 제도적인 뒷받침보다도 실제적으로 꾸려가야 할 선생님들의 인식과 실천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그간의 생각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기존의 틀에 박힌 인식을 기준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의 소중한 미래를 천편일률적으로 미리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현재보다는 '미래'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점보다는 '나눔'을, 단순히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보다는 '자아실현으로 행복한 인간'을 꿈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가르침과 배움의 안내자요 실천가로서 우리들이 서있다면 행복한 교직 생활이라고 충분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혁신학교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에서 만큼은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염려들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을 중심에 놓고 치열한 토론과 협력을 이루어내어야 하고,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열정적 노력과 실천을 이야기해야 할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선생님께 오롯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저녁

글 창원 감천초등학교 학부모 **정정임**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은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는 책은 그림이 주가 되는 그림책에서 내용이 가득 담긴 글 책으로 바뀌어 가지만,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과 책을 읽어주는 즐거움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 같다.

책 읽어주는 시간은 읽어주는 내용에 따라서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이에게 부모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책 읽어주기의 힘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것도 책을 통해 돌려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읽어 준 책 중에 성장 소설로서는 처음 도전한 위기철 작가의 『아홉 살 인생』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9살인 여민이 지금의 9살보다 왜 더 빨리 철이 들어야 했는지, 기종의 4차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검은 제비는 왜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 등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지난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어주면서는 제제가 아빠에게 맞는 부분에서 같이 슬퍼하고, 뽀루뚜가 아저씨의 죽음에서는 식구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다.

책을 읽어주고 듣는 동안에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가 끝나면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더 읽어달라고 아이들이 떼를 쓰기도 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사실 지금 읽어주는 책 내용을 내 아이가 오랫동안 기억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을 읽어줄 때 엄마, 아빠의 목소리, 눈물, 듣는 자신들의 마음이 즐거운 추억 한 자락으로 가슴에 남을 것이라 믿는다.

글자가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 두렵고 아이들이 잘 듣지 않을까봐 걱정이라면 그림책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엄마 이야기』를 읽으며 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엄마도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다. 『막걸리 심부름』을 읽어주며 엄마, 아빠의 어릴 적 추억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이렇듯 책 읽는 시간은 단지 아이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유익한 즐거운 시간이다.

책을 꼭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읽어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형이 동생을 위해 책을 찾아서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더 읽고 싶은 욕심에 엄마가 읽은 다음 단락을 읽기도 한다.

읽어주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책 읽어주는 저녁시간, 책 읽어주기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은 서로에게 집중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아이에게 수준에 맞지 않다고 읽어주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치하다고 피하지 말고 즐거운 책부터 찾아서 읽어주는 행복한 시간을 다 같이 가져보면 좋겠다.

책 / 안아라, 내일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그대 춤춰라

정여울 (지은이) | 21세기북스(북이십일) | 2013-05-10

글 양산 서창중학교 교사 한채윤

그런 책들이 있다. 읽기도 전에 가슴이 뛰고 내 삶을 180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하는 책들. 내게 오소희 여행가의 여행기 『안아라, 내일은 없는 것처럼』은 그런 책들 중 한 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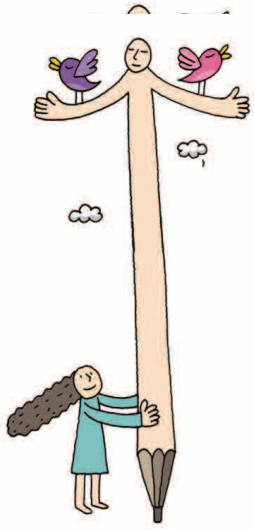
이 책은 세 살배기 아들 JB와 함께 터키로 떠난 첫 번째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여행을 하고 있는 오소희 작가의 남미 여행서이다. 약 세 달 동안 남아메리카의 6개국을 여행한 나날들을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깊은 사유가 돋보이는 문장으로 전해준다.

저자가 남미를 여행하면서 받은 라티노들에 대한 일관된 인상은 폭력과 피로 얼룩진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누릴 줄 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작가는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무한경쟁의 속도전 속에 내동댕이쳐진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처음 교단에 선 나는 늘 치쳐 있고 피곤한 어른들의 세계를 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고차원적 학문이나 삶의 대단한 진리를 가르치기에 앞서 ‘행복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그러나 어느새 좋은 대학을 가고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곧 행복한 미래로 연결된다는 경직된 생각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라는 말을 하루라도 놓지 않는 교사가 되어 버렸다. 왜 그들에게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허황되리만큼 멋진 꿈을 꾸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희의 오늘을 즐겨라.’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는지 책을 읽는 내내 반성하게 됐다.

작가의 말처럼 ‘카르페디엠(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를 질펀하게 육화시키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에는 망나니 벗들도 있다는 사실이 이 책을 읽는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뜨끈한 체온을 느끼고 나눴으면 좋겠다. 라티노들 덕분에, 당신들도 그녀와 나처럼.

책 속에서 꿈꾸는 아이들



글 남해 지족초등학교 교사 **남민주**

1. 들어가며

전교생 55명이 옹기종기 모여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곳, 지족초등학교에는 학교와 마을의 자랑인 꿈 키움 독서 동아리가 있다. 지족 독서 동아리 '북꿈아'는 4~6학년 35명 중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족초등학교 전교생은 매년 3월 넷째 주에 서점에 직접 가서 자신의 꿈과 관련된 책을 선택하여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월요일 아침, 전교생 앞에서 꿈 발표 조회를 한다. 내 꿈, 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는다는 것은 분명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활동내용

'북꿈아'는 2012학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는 6학년 학생과 2013, 2014학년도에 가입한 4,5,6학년 15명이 매 주 책을 한 권씩 읽고 느낀 점을 나누고 있다. 6학년-4학년, 5학년-5학년과 같이 두 명씩 발제자가 되어 먼저 책을 읽고 난 소감을 말하고, 함께 할 독후활동을 안내한다. 학생들이 함께 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독서퀴즈 만들기

독서퀴즈 내용은 주인공의 이름, 글의 배경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사건과 이어질 이야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심사숙고하며 푼 문제를 보면서 북꿈아는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문항의 답은 출제자가 생각한 것과 달리 15가지가 될 수도 있고, 모두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하나의 답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북꿈아 독서퀴즈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고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독서토론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나. 그림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책을 읽고 책 속의 인물을 그림과 마인드맵으로 나타낸다. 글에서 만난 주인공의 외모를 상상하며 그려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주인공이 생각하고 있을 법한 내용을 글로 쓰기도 한다. 책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주인공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실재인물에 대한 그림과 마인드맵을 그려나간다. 예를 들어 『뻥쟁이 선생님』을 읽고 나서 책 속 뻥쟁이 선생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얀 도화지를 채운 후에 우리반 선생님, 우리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선생님으로 또 다른 도화지를 채워 보았다.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더 깊이 있는 독서활동을 한다.

다. 책 소개하기

도서관에 들어선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지?' 하는 고민을 하며 서가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북꿈아들은 우리가 먼저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보고자 책 소개를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행복한 책읽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최된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소개활동을 먼저 하였다. 선정도서 중 한 권을 읽고 나서 책을 소개하는 글과 책의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 또 어떤 학생이 읽으면 좋을지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책 곁에 함께 두었다. 책읽기의 즐거움을 동아리학생뿐만 아니라 지족초 전체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활동이었다.

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학기행

본교는 학부모 독서 동아리 '책나라 여행'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2013학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올 가을에는 경북 왜관으로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문학기행을 떠나고자 준비하고 있다. 공지영 작가의 신작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의 배경이기도 한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학부모 독서 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매년 문학기행을 추진하며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마. 책읽는 학교 만들기

2014년에는 책읽는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 책 향기를 풍기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스쿨버스 등받이 뒤쪽과 학교 정자에 간이 책장을 만들고 책을 비치하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책을 대출할 때 독서행운권을 나누어 주고 두 달에 한 번씩 독서행운권을 추첨하여 도서교환권을 증정함으로써 책읽기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저학년의 독서습관형성을 위해 매주 금요일 '책 읽어주는 어머니'를 운영하고 있다.

3. 나오며

매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책을 읽기 전 책의 표지를 보고 나눈 대화와 일주일 뒤에 책을 읽고 난 후 '북꿈아'들과 나눈 대화를 비교해 보면 일주일 사이 아이들의 마음이 한 뼘 더 자란 것을 느낄 수 있다. 책을 읽는 동안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지만 마음의 넓이도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으로서 '북꿈아'들은 동아리 이름처럼 책에서 꿈을 꾸고, 책을 통해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책을 만나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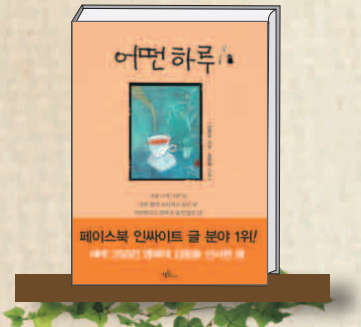
사이토 다카시 저/오근영 역 | 걷는나무 | 2014년 6월

이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학교나 기업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키우는 법'을 알려 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때 그가 들려주는 답은 하나다. 당장 써먹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 저자는 말한다.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공부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인생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즐겁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 책은 일도 인간관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 자신감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과 삶, 미래를 통찰하는 법을 일깨워 줄 것이다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하이디 그랜트 할버슨,토리 히긴스 공저/강유리 역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14년 5월

저자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둘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에게는 '성취지향(promotion focus)'과 '안정지향(prevention focus)'이라는 두 가지 행동 동기가 있음을 밝힌다. 이 가운데 어떤 동기가 더 지배적인가에 따라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동기부여에 관한 중요한 열쇠임을 지적한 것이다. 동기 성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성향이 개인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에서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업무를 대하는 태도부터 자녀 양육, 연애, 의사결정 방식, 정치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험과 사례를 통해 살핀다. 한편으로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필요에 따라 성향을 전환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고 있다.



어떤 하루

신준모 저/김진희 그림 | 프롬북스 | 2014년 3월

이 책은 SNS에서 매일 올린 글들을 모아 엮은 책으로, 페이스북 인싸이트 글분야 1위, 매주 250만 명이 읽고 있는 글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책의 글들은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뼈아픈 충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누어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글들로 구성했다. 저자는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일, 사랑, 꿈, 인간관계, 가족, 우정이 어우러져 하루를 채워가고, 쌓여가면서 인생을 채우는 것임을 일깨운다.

명제 : 분청 조화 문호, 소지 : 분청토, size : 18 ×30×8
유약 : 청자 유약, 소성 : 1200℃ 환원 소성

분청 조화 문호

분청소지로 성형후 화장토를 바르고 전통 국화문양을 현대화시켜 표현하였다.

소박함과 청렴함을 살리기 위해 청자유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작품.

홍명선 / 북면초등학교 교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이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 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경남교육은

첫째,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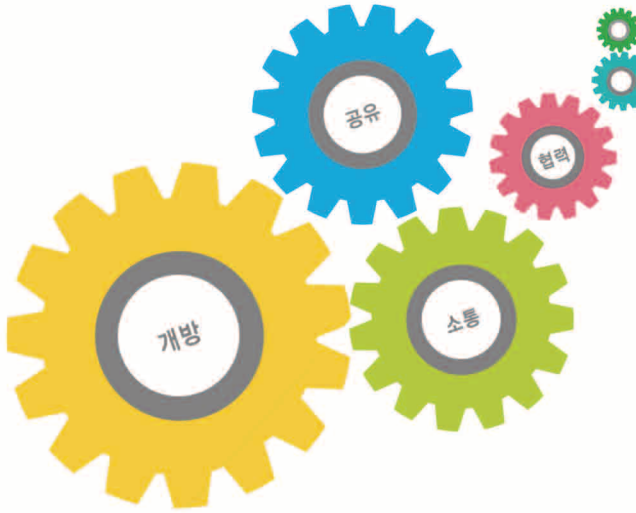
0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0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03. 민 · 관 협치 강화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0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05.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0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셋째, 국민 중심의 서비스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0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0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0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경상남도교육청의 약속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으로 함께 가꾸는 무한공감 경남교육 3.0 !
정부3.0과 함께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